

‘고수익 유혹’ 분양형호텔 폐해 심각

서귀포지역 30곳 중 2곳 ‘한 지붕 두 운영사’ 갈등 폐쇄
최근 한 호텔 복수 영업신고에 행정이 중재 나서기도
현재 공사중 분양형호텔도 15개소… 피해 양산 우려

연금처럼 일정기간 연 10% 안팎의 확정수익금 등을 내세워 분양한 분양형호텔의 과잉공급에 따른 경영난으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수분양자)들이 당초 약속했던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한 호텔 건물에서 시행사측과 투자자들이 내세운 2개의 운영사가 각각 숙박업 영업신고를 받아 다른 호텔 이름과 각각의 프랜트를 운영하는 ‘한 지붕 두 가족’의 불편한 동거로 갈등을 겪고 있다. 하지만 분양형호텔은 현재 법적·제도적으로 소비자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소송 밖에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3년 첫 영업신고가 시작돼 현재 지역에서 영업 중인 분양형호텔은 28곳(6524실)에 이른다. 분양형호텔은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관광호텔과는 달리 일반숙박업으로 분류돼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이다. 한 개의 분양형호텔 객실을 나눠 2개 이상 복수 운영사의 영입이 가능한 것은 이들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것으로, 복수 영업신고는 객실 구분소유자 80%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 합

의를 제출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가능하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현재 5곳의 호텔이 시행사가 지정한 위탁운영사와 투자자간 갈등을 겪고 있다. 이중 2곳은 최초 시행사가 지정한 운영사와 투자자들이 내세운 2개 운영사가 서귀포시로부터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 중이다. 또 다른 호텔 2곳은 각각 2개 운영사가 운영하다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2개 운영사는 서귀포시가 지난 7월 하순 청문을 거쳐 영업장을 폐쇄했다. 이들 호텔 중 한 곳에선 8월 초 운영사 대표가 투자자들이 내세운 또다른 운영사 직원에게 흥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한 곳의 분양형호텔은 일부 투자자들이 또 다른 운영사를 내세워 영업하기 위해 서귀포시에 지난 6월 영업신고를 했지만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시에서 보완을 요구

한 상태다. 새로 영업신고하려는 측과 현재 운영사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시는 지난 6일 시청에서 양측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며 중재 시도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분양형호텔을 둘러싼 시행사와 투자자간 갈등은 중국인관광객 감소와 숙박업소 공급과잉에 따른 낮은 객실가동률이 주된 원인인데, 설상가상으로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서 공사중인 분양형호텔이 15개소(1600여실)로 피해자 양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본 요건을 갖추면 한 곳의 분양형호텔에 대한 복수 영업신고가 가능하고, 두 운영사가 큰 문제 없이 영업 중인 곳도 있다”며 “최근 복수 영업신고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호텔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행정에서 처음으로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 갈등 해소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제주시 아라1동에 건립될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조감도.

사진=제주도 제공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문 연다

도, 이달 중 공사 발주 착수
아라동에 총 4층 규모 건립
생애주기 맞춤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돌봄과 가족 지원이 요구되는 발달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정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가정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제주시 아라1동 362-35번지 인근 연면적 4680.5㎡,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계획됐다. 주요시설은 평생교육실, 부모자조모임실, 주거체험실, 프로그램실, 체육관, 다목적실, 실내놀이터, 직업훈련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약 159억9200만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실시시설 계약역을 마무리했으며, 이달 중 공

사 발주와 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은 생애주기를 통틀어 지속적인 돌봄과 가족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이용프로그램 및 보호기관의 부족으로 부모가 전적인 돌봄 책임을 져야 해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등록 장애인은 2019년 8월말 기준 3만6200명(제주도 전체인구의 5.2%)인데, 이 중 10.57%(3826명)가 지적·자폐 등 발달장애인이다.

제주도는 이번 복지관 건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와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 인프라 강화로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발달장애인 대상자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실을 활용한 운동발달·감각촉진 등의 활동, 장애인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소진기자

태풍 지나간 제주, 특별방역 분주

서귀포보건소, 기동반 편성

서귀포보건소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제주를 지나간 이후 위생해충 및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기동반 2개반을 편성해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번 방역소독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과 공공화장실, 클린하우스와 모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집중 이뤄지고 있으며,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살균 소독도 병행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귀포보건소 방역기동반은 방역민원 신고센터(064-760-6585)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태풍으로 인해 집중호우 및 침수로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위생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을 장마와 겹친 태풍이 소멸된 후 질병매개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태윤기자



태풍 피해 응급조치 마무리… 정밀조사 착수

도, 자체 합동조사단 구성
오는 16일까지 조사완료 후
피해 복구계획 즉시 수립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8일까지 응급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6

일까지 정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1만2602가구에 정전 피해가 발생하고, 신호동 5개소, 가로동 4개소, 교통표지판 3개소가 파손되는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가 완료됐다.

이번 태풍으로 사유시설 주택 2가

구 침수, 비닐하우스 25동, 이선 2척, 어장관리선 1척, 레저보트 6척 침몰·파손, 낚지 3만 5000마리 폐사, 용암해수단지 입구기업 공장 외벽 일부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군부대·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해 쓰레기를 제거하고 파손물을 안전조치 하는 등 활동과 함께 사회 복지시설 및 1인 독거가구 대상으로 안전상태를 확인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피해합동조사단운영규정에 따라 9개반 25명으로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했으며, 오는 13일까지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16일까지 사유시설 피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피해조사를 마치는 대로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계획에 따라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 시설의 복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상윤기자

“종이팩, 화장지로 바꾸세요”
제주시, 16일부터 보상·교환

제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종이팩(컵) 재활용 증대를 위한 보상·교환 사업을 추진한다.

종이팩(컵) 보상·교환 사업은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소주팩 등 종이팩(컵)을 친환경 재생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다. 종이팩(컵) 분리배출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종이팩류는 고급 펄프로 제조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주에도 매달

종이팩류 130t이 반입되나 클린하우스에 저급폐지류(박스류)와 혼합 배출되거나 소각 처리돼 수거 후 재활용률이 11.5%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재활용나눔장터 등 지역축제 이벤트로 재생휴지 보상·교환사업 진행 시 시민호응도가 높아, 상시적 교환창구의 설치가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달 16일부터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32개소에서 분리배출한 종이팩(컵)류를 중량(kg) 당 재생화장지로 교환해 줄 예정이다. 종이팩(컵) 0.5kg 당 화장지 1롤 또는 1kg당 미용화장지(200매) 1박스로 바꿀 수 있다. 고대모기자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페르카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앵배추브로컬리 무우 앵배추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앵배추브로컬리 앵파배추 (500mℓ당 500배 희석)

- 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자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우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늘

- 소독: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말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